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말씀>

전환은 부활이다. 희망이다. 새로운 삶이다

본 문 마태복음 23장 27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은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말씀 시작>

◎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지혜의 말씀 한 가지>를 간단히 해 주겠습니다.

<단상의 말씀>은 성령께서 꼭 선생 먼저 겪게 하시고,
그로 인해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 지금 한국은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선생이 있는 곳은 다행히 방바닥은 따뜻한데,
옷풍이 세서 매우 춥습니다.

처음에는 옷푹을 참고 견디기만 했는데,
곧 머리를 쓰고 <생각>을 썼습니다.

물통 네 개에 물을 넣고 담요로 덮어 놓으면,
바닥이 따뜻하니 물이 잘 안 식어서 따뜻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내가 추운데, 물통만 담요로 덮어 놓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을 써라. 머리를 써라.’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거나 기도할 때
담요의 반은 내가 덮고, 나머지 반은 물통을 덮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물만 생각했지, 내 몸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즉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하며, 억울해했습니다.

- ◆ 이렇게 간단한 일이라도 <생각>을 안 쓰면, 해결을 못 합니다.
큰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참고 견디기만 하지 말고, <생각>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고생할 것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 ◆ 자연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추운데 참고 견디기만 하지 말고,
따뜻한 곳에 들어가거나 기도굴에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늘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생각>을 써야 보다 쉽습니다.

고생을 덜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 ◆ 겨울에 방바닥은 따뜻한데, 옷푹이 세면 춥습니다.
이때 참기만 하지 말고 <머리>를 써야 됩니다.
비닐로 창문을 막으면, 아주 따뜻해집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형제들로 인해 찬바람이 불면,
<머리>를 써서 그때마다 지혜롭게 행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고 견디는 것보다 낫습니다.

- ◆ 환난과 핍박도 <참아야 할 것>도 있지만,
<말하고 겨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여 참고 견디기만 하지 말고,
<생각>을 써서 주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이겨야 됩니다.

- ◆ 한번은 대둔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극심한 눈보라가 치는데도 참고 견디다가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쓰니, 깨달음이 왔습니다.
바위 밑으로 가니, 눈은 안 맞았습니다.

그러나 대둔산 바위 밑은 무당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서 더 떨면서 고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고하며 우상들이 없어지도록 간구했습니다.

- ◆ 무조건 하면서 참고 견디기만 하지 말고,
<생각>을 쓰고 <머리>를 써서 <지혜>로 행하여
<미련함으로 인해 오는 고통>을 벗어나야 됩니다!

<전환>

◎ 이제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핵심을 딱 알아듣고 즉시 행하도록 말씀할 테니,
모두 말씀을 듣고 ‘이때 전환할 것’ 이 무엇인지 깨닫고
꼭! 행하기 바랍니다.

〈전환〉은 ‘새로운 삶’ 입니다. 〈전환〉은 ‘부활’ 입니다.

- ◆ 〈전환기 때 전환하는 자〉는 ‘전환된 시대’ 에서 살고,
〈전환하지 못한 자〉는 ‘전환되지 못한 옛 시대’ 에서 살게 됩니다.

- ◆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새 말씀〉을 주시며 〈새 시대〉로 전환시키실 때
그때 〈새 시대로 전환한 자들〉은 ‘새 시대’ 에서 살게 되었고,
〈전환하지 못한 자들〉은 ‘구시대’ 에서 끝났습니다.

- ◆ 〈생활 속의 전환〉도 그러합니다.

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새벽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일어나서 전환한 자〉는
그로 인해 ‘새로운 세계’ 에서 살고,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 자는 자〉는 ‘잠 세계’ 에서 삽니다.

새벽잠에서 깨어 전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환〉하면, 즉시 ‘새 세계’ 가 열립니다.

- ◆ 〈전환〉하면 ‘새 세계’ 가 열리지만,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전환할 때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성에서 십리사로 전환할 때, 참 힘들었지요?

이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전환할 때, 참 힘들었지요?

세상 사랑에서 삼위와의 사랑으로 전환할 때,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환하기>는 깊은 새벽잠에서 일어나기만큼이나 힘듭니다.

힘들지만 <전환>하니,

새 시대 새 말씀을 듣고 새 시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 시대를 만나 살아도

때마다 차원을 높이고 자기를 만들며 <전환>해야

<부활의 삶>이 되어 ‘희망과 감사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것>이 ‘전환’입니다.

그러나 <실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함으로 전환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새 시대 새 말씀을 들었어도 ‘옛 시대, 옛 삶’입니다.

◆ 무엇이든 <전환>이 그리도 힘듭니다.

<생각의 전환, 행실의 전환, 생활의 전환>입니다.

그러나 전환하면, ‘새 시대’이며 ‘부활’이며 ‘희망’입니다.

안 하면, ‘구시대’이며 ‘죽은 삶’입니다. ‘제자리’입니다.

고로 쳇바퀴 돌듯, 희망도 기쁨도 없습니다.

◆ <청소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도 ‘전환’입니다.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도 ‘전환’입니다.

<차원을 높이는 것>도 ‘전환’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전환’입니다.

전환하면, ‘부활의 삶, 새로운 삶’ 이라서 좋습니다.

안 하면, ‘죽은 상태’ 입니다.

- ◆ 그러나 ‘전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전환한 자>는 더 이상 ‘죽은 상태’ 가 아닙니다.

살아 있으니, 다시는 ‘옛것’ 을 안 합니다.

마치 새벽잠에서 깨어나 전환하면

그때부터는 거의 다시 잠자는 사람이 없듯,

<전환한 자>는 다시는 ‘옛 삶, 죽은 삶’ 을 살지 않습니다.

- ◆ <기도>해서 감동을 받고 깨닫고 전환하고,
<성령이 주는 감동>을 받고 전환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스스로 전환하고,
자기 스스로 <발전>하고 <차원>을 높이면서 전환해야 됩니다.

<전환>하기만 하면, ‘옛것, 옛 세계’ 에서 나와 자유롭게 됩니다.

<전환>은 마치 ‘옥에서 나오는 것’ 과 같습니다.

- ◆ <구시대>는 새 시대에 비해 ‘감옥’ 과 같고 ‘무덤’ 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구시대>를 보며 ‘회칠한 무덤’ 이라고 했습니다.

저마다 <신앙의 구시대>를 벗어나 전환하고,

새 시대를 만났어도 <생활 속의 옛것>을 벗어나 전환해야 됩니다.

- ◆ <전환할 때>가 언제인지 저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안 합니다.

<전환>이 얼마나 좋은지도 압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못 합니다.

이유는 구시대에서 잠들어서입니다.

자기 생활에서 잠들어서입니다.

세상이나, 이성이나, 동성이나, 자기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입니다.

이미 자기가 살면서 습관이 된 것을 새롭게 하려니,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이 힘들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도

일어나기 귀찮고 싫어서 안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잠만 자면서 누워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일어나야 됩니다.

어차피 일어날 것, 빨리 전환하고 일어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생활도 그러합니다.

◆ <제때 전환하지 못한 자>는

제일 좋은 때를 놓치고 2차, 3차, 4차 전환의 때에 합니다.

어차피 전환할 것인데 질질 끌다가

<제일 좋은 때>를 놓치고 나중에 전환하니,

인생 나이가 들어 누릴 시간이 적고 희망이 적습니다.

마치 섭리 10대 중후반, 20대 초반에 섭리사에 올 자들이

<제일 좋은 때>를 놓치고

20대 중후반, 30대, 40대, 인생 해 그늘에 오는 것과 같습니다.

- ◆ 새벽에 자기 정한 시간에 일찍 일어나 전환하듯이,
만사에 전환할 것, 부활할 것, 새롭게 할 것을
꾸물대지 말고 즉시 행하기 바랍니다!

늦게 하면, 다른 사람은 일찍 하고 떠났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더 힘듭니다.

<먼저 간 자>를 못 따라갑니다.

<먼저 간 자>는 이미 얻고, 얻은 것을 가지고 힘 받고,
차를 타고 더 가서는 또 받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더 갑니다.

고로 못 따라갑니다.

<주>는 이미 전환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새롭게 했습니다!
모두 어서 행하기 바랍니다!

- ◆ <전환한 자>는 ‘새 시대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그때 순간 전환하지 못한 자>는
새 시대에 왔어도 ‘새 시대 혜택’을 못 받고 살아갑니다.

절대로 <전환의 때>에 전환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깨닫게 해 줄 때,
그때 말씀을 듣고 전환해야 됩니다.

그때 못 하면, 못 하고 끝납니다.

지금 이 ‘또 새롭게 전환할 때’입니다.

<회개하여 깨끗이 하고, 차원을 높여 전환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과 감사’이며 ‘부활과 기쁨’입니다.

- ◆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한마디 더 해 주셨습니다.

“<전환한 자>는 ‘성공한 자’ 다.

<섭리역사에 온 자>는 ‘성공한 자’ 다.

이제 잘 간수하고 관리하고 가면 된다. 끝까지 가라.

이미 역사를 펴면서 전환하고 휴거됐으니, 계속해라.

휴거를 뺏기면, 다시 하기 어렵다.

때가 지나갔기 때문이다.

혹여 빈손으로 있어도, <휴거된 자>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휴거된 자>는 ‘소유를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산 자’ 다.

고로 ‘축복’ 을 받는다.”

<말씀 마무리>

-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 ◆ <꺼리는 것을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도 ‘전환’ 입니다.

<고칠 것을 고치고 자신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도 ‘전환’ 입니다.

<생각과 행실의 차원을 높이는 것>도 ‘전환’ 입니다.

<신앙과 휴거의 차원을 높이는 것>도 ‘전환’ 입니다.

- ◆ <전환>하면 ‘땀 세상’ 입니다. ‘새로운 세계’ 입니다.

<전환>은 ‘부활’ 입니다. ‘새로운 삶’ 입니다.

고로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삶’ 으로 뒤바뀝니다.

- ◆ 모두 주를 맞기 전에 전환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부활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쓰고 <머리>를 써서 깊이 생각하고
꼭 ‘전환의 삶, 부활의 삶, 희망의 삶’ 을 살기를 축원합니다.